



■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 산업 氷壁(ICE CLIFF)의 직면과 생존을 위한 노력

- ① 국제교역 (International trade)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두
- ② 산업 경쟁력 (Competitiveness) 강화를 위한 논의 확대
- ③ 수출산업 (Export industry)간 경기 디커플링
- ④ 위기 (Crisis) 확산과 한계기업 증가
- ⑤ 새로운 주력산업 (Leading sector)의 신기루
- ⑥ 산업 내 (Intra - industry) 구조조정 확산
- ⑦ 국내 불확실성 증폭으로 해외생산 (Foreign production) 급증
- ⑧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가속

# 목 차

---

## ■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 산업 氷壁(ICE CLIFF)의 직면과 생존을 위한 노력

Executive Summary .....	i
1. 2017년 산업경기의 키워드 .....	1
2.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 .....	2
3. 시사점 .....	11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 원 이 사 대 우 (02-2072-6235, juwon@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 산업 氷壁(ICE CLIFF)의 직면과 생존을 위한 노력

#### ■ 2017년 산업경기의 키워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산업경기의 키워드로 「산업 빙벽 (氷壁 - ICE CLIFF)」을 제시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을 나타내는 각 핵심 용어의 첫 영문자를 조합한 것이다.

#### ■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

##### ① 국제교역 (International trade)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두

2017년 국제교역이 회복되는 점은 국내 수출산업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도 확산되고 있어 제한적인 수출 경기 회복이 전망된다. 2017년 세계 경제가 미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침체 국면을 탈출하고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면서 국제교역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 경제권별로 여전히 충분한 경기 회복 강도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② 산업 경쟁력 (Competitiveness) 강화를 위한 논의 확대

취약한 산업 경쟁력 문제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산업 경쟁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민·관의 인식이 공유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인 이해관계 등이 얽혀 구체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③ 수출산업 (Export industry)간 경기 디커플링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내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해외 시장 수요가 내수 시장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높아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산업경기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산업 내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기계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경기 부진을 보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 ④ 위기 (Crisis) 확산과 한계기업 증가

취약 산업의 위기가 연관 효과를 통해 다른 산업으로 전염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적인 공급과잉이나 경쟁력 저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들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들 산업들의 과잉생산능력에 대한 강제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향후 취약산업의 위기가 산업 연관경로를 통해 다른 산업을 포함하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 비중이 전방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2017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⑤ 새로운 주력산업 (Leading sector)의 신기루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주력산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부상하는 대부분의 신기술·신분야들이 아직 시장수요와 생산시스템이 구체화되는 산업단계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의 구성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며, 중후장대 산업의 위기, ICT 산업의 성숙 등으로 새로운 주력산업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상하는 대부분의 신기술·신분야들이 아직 시장수요와 생산시스템이 구체화되는 산업단계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 ⑥ 산업 내 (Intra-industry) 구조조정 확산

산업 내 한계기업의 퇴출과 기업 내 저부가 사업 부문 정리를 의미하는 협의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불황 국면이 지속되면서 취약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과 기업의 영속성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계기업과 사업 구조조정에 국한되는 산업 내 (Intra-industry)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절실한 주력산업 재편을 의미하는 광의의 구조조정, 즉 산업 간 (Inter-industry)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⑦ 국내 불확실성 증폭으로 해외생산 (Foreign production) 급증

정치 불확실성 증폭, 반기업 정서 확산, 생산요소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의 국내 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수익성 저하에 직면하면서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수요확보를 위한 시장접근 등을 위해 해외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2017년은 대선에 따른 정치불확실성 급증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유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⑧ 4차 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가속

신성장 동력으로써의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T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외 모두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능력은 다른 경쟁국가들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국가 전략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 시사점

2017년 예상되는 산업경기의 특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과 FTA 활용도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성장잠재력 원천인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생산요소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셋째,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될 수 있는 대중국 수출전략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성장력과 고용흡수력 등의 경제체력을 감안한 산업 내 구조조정의 완급조절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경제와 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신산업 발굴 노력이 절실하다. 여섯째, 경제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간 구조조정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시장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의 해외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여덟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방향이 『효율·축소』에서 『성장·확장』 지향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1. 2017년 산업경기의 키워드

-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산업경기의 키워드로 『산업 빙벽 (氷壁 - ICE CLIFF)』을 제시
  - 이는 다음과 같은 산업경기의 8대 특징을 나타내는 핵심용어의 첫 영문자를 조합한 것임
  - (대외 여건) 8대 특징중 ICE는 국제교역 회복, 글로벌 산업경쟁력, 수출산업 경기 격차 등의 2017년 예상되는 대외 여건에서의 특징을 의미함
  - (국내 여건) CLIFF는 주력 산업의 위기, 신산업에 대한 방향성, 구조조정, 국내 투자 침체, 4차 산업혁명의 가속 등 2017년 예상되는 국내 여건에서의 특징을 의미함
  - (희망 요인) 8대 특징의 내용중 희망적인 요인들은 국제교역 회복, 미국 시장 의존적 산업의 수출 개선, 4차 산업혁명의 가속 등을 들 수 있음
  - (불안 요인) 반면 부정적인 요인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산업경쟁력 취약, 중국시장 의존적 수출산업의 부침, 한계기업의 증가, 새로운 주력산업의 한계, 산업 내 구조조정, 해외생산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 >

2017년 산업경기 키워드 : 산업 빙벽 (氷壁 - ICE CLIFF)
① 국제교역 (International trade)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두
② 산업 경쟁력 (Competitiveness) 강화를 위한 논의 확대
③ 수출산업 (Export industry)간 경기 디커플링
④ 위기 (Crisis) 확산과 한계기업 증가
⑤ 새로운 주력산업 (Leading sector)의 신기루
⑥ 산업 내 (Intra - industry) 구조조정 확산
⑦ 국내 불확실성 증폭으로 해외생산 (Foreign production) 급증
⑧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가속

## 2.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

### ① 국제교역 (International trade)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두

○ 2017년 국제교역이 회복되는 점은 국내 수출산업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도 확산되고 있어 제한적인 수출 경기 회복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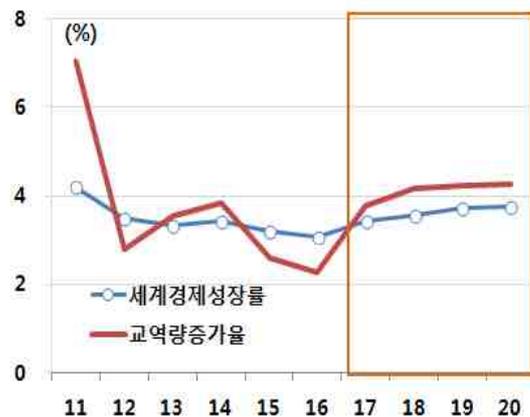
- 2017년 세계 경제가 미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침체 국면을 탈출하고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면서 국제교역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IMF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1.6%에서 2017년 2.2%로 높아지고, 신흥국 및 개도국 성장률도 같은 기간 4.2%에서 4.6%로 상승을 전망함
- 또한 2016년 국제교역량증가율(2.3%)이 세계경제성장률(3.1%)보다 낮았으나 2017년에는 교역량증가율(3.8%)이 경제성장률(3.4%)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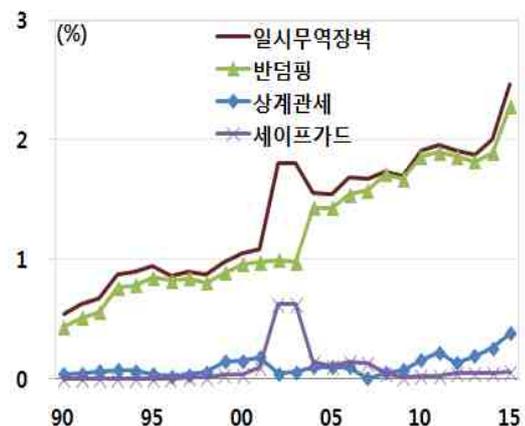
- 그러나 주요 경제권별로 여전히 충분한 경기 회복 강도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이외 선진국이 여전히 침체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가 중(中)속도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이들 국가들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존재함
-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자유무역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성장률 및 국제교역량증가율 > < 세계 일시무역장벽 영향 교역 비중 >



자료 : IMF.



자료 : IMF(2016).  
원자료 : GTA database.

② 산업 경쟁력 (Competitiveness) 강화를 위한 논의 확대

○ 취약한 산업 경쟁력 문제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인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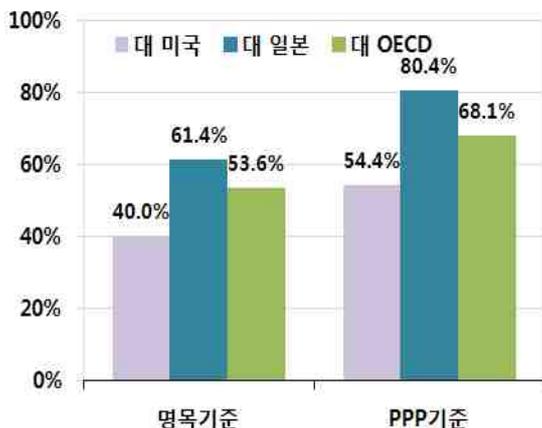
- 노동생산성은 단순히 노동력에 대한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이에 대응되는 자본 및 기술 투자 수준 등의 생산요소간 결합 방식까지 고려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 2015년의 한국 노동생산성은 명목 기준으로 OECD의 53.6%, 미국의 40.0% 수준에 불과함 (특히 각국의 인플레이와 PPP를 고려하여 보정된 노동생산성으로 보아도 OECD의 68.1%, 미국의 54.4% 수준에 불과함)

-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

- WEF의 최근 국가 경쟁력 평가 자료를 보면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의 한국 순위는 전체 138개국중 77위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에서 노사협력은 135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3위, 정리해고 비용은 112위 등에 그침

- 이에 산업 경쟁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민·관의 인식이 공유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인 이해관계 등이 얽혀 구체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주요국 대비 노동생산성 >



자료 : OECD, ILO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주 : 2015년 GDP/총근로시간 기준.

< WEF의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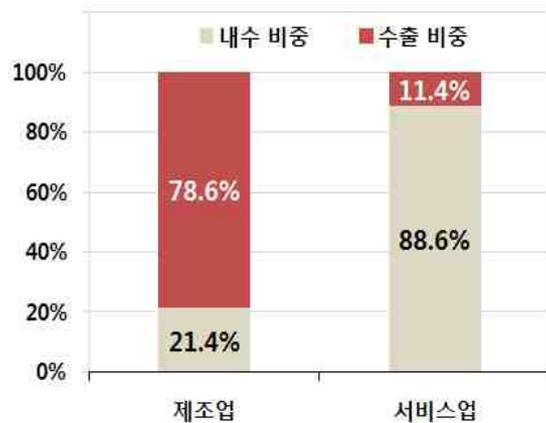
국가 경쟁력 항목	Rank / 138개국
노동시장 효율성	77
노사협력	135
고용 및 해고 관행	113
정리해고비용	112
임금결정 유연성	73

자료 : WEF(2016).  
주 : 2016-2017 기준.

### ③ 수출산업 (Export industry)간 경기 디커플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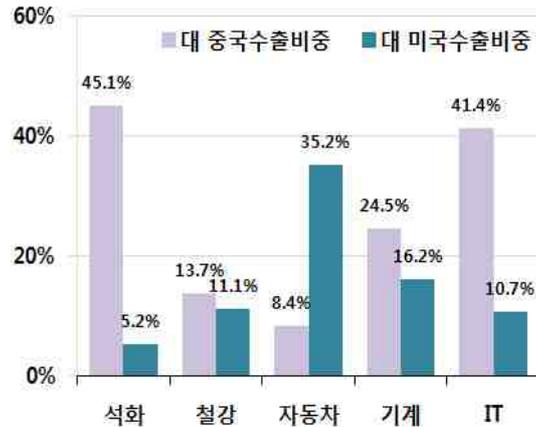
-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내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전통적으로 제조업은 해외 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고 서비스업은 국내 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제조업의 생산물 수요에 대한 수출시장 비중은 78.6%로 전형적인 수출 지향적 산업임
    - 반면 서비스업의 수출시장 비중은 11.4%로 내수 경기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모습임
  - 이에 따라 해외 시장 수요가 높은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산업경기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
    - 세계 경제 상황이 국내 경제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경기가 서비스업보다 높은 생산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세계 경제가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 등으로 여전히 성장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기 상승세는 제한적인 범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수출산업 내에서도 업종간 주력 시장에 차이가 있어 경기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
    -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은 생산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기계 등의 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성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존재함
    - IT 산업은 외형적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나 중국의 생산기지를 거쳐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는 우회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기의 방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수출 및 내수 비중 >



자료 : 2014년 IO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 주요 수출산업의 대 중국 및 미국 수출 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 ④ 위기 (Crisis) 확산과 한계기업 증가

○ 취약 산업의 위기가 연관 효과를 통해 다른 산업으로 전염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구조적인 시장 공급과잉 문제나 경쟁력 저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들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들 산업들의 과잉 생산능력에 대한 강제적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주목되는 취약산업들로는 기초화학제품 제조업, 철강 제조업, 조선업, 해운업 등이며 이들 산업은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 수주산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공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대규모 구조조정의 가능성은 없으나, 2017년중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문제는 향후 특정 산업의 위기가 취약산업 내 한정되지 않고 산업연관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취약산업의 침체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가가치 및 고용 감소효과는 이외 산업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5대 취약산업에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취약산업 내 부가가치 감소

액은 9조 9,000억 원이며, 취약산업 이외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감소액은 9조 7,000억 원임

- 또한 취약 산업 내 고용 감소분은 15만 4,000명이며 취약산업 이외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 감소분은 17만 3,000명에 달함

- 이에 따라 한계기업 비중이 전방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2017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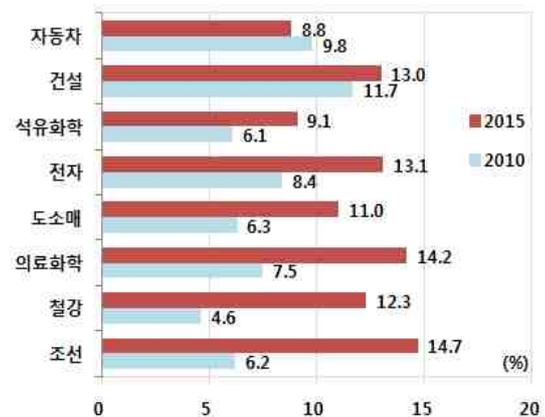
-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특히, 화학, 철강, 조선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조선업 내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6.2%에서 2015년 14.7%로 급증하였으며, 철강은 같은 기간 4.6%에서 12.3%, 석화는 6.1%에서 9.1%로 상승함

< 취약 산업 최종수요가 10% 감소할 경우 부가가치 및 고용 감소 효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6c).

< 산업별 한계기업 비중 >



자료 : 한국은행(2016) 재인용.  
원자료 : KIS-VALUE.

⑤ 새로운 주력산업(Leading sector)의 신기루

-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주력산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부상하는 대부분의 신기술·신분야들이 아직 시장 수요와 생산시스템이 구체화되는 산업단계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임

-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의 구성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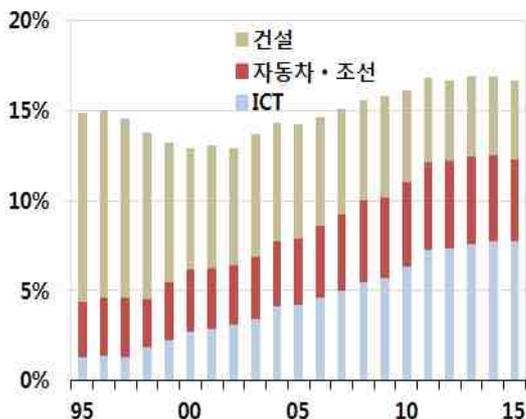
습이며, 중후장대 산업의 위기, ICT 산업의 성숙 등으로 새로운 주력산업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

- 자동차·조선의 운송기계 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 3.0%에서 2015년에 4.5%로 증가하였으며, ICT 산업의 비중도 같은 기간 1.3%에서 2015년에 7.7%로 증가함
-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조선업의 위기, 자동차 산업 성장의 정체, ICT 산업의 성숙화 등으로 주력산업의 한계성이 표출되는 모습임
- 더구나 우리와 수출경합도가 높은 중국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어 우리 주력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부상하는 대부분의 신기술·신분야들이 아직 시장수요와 생산시스템이 구체화되는 산업단계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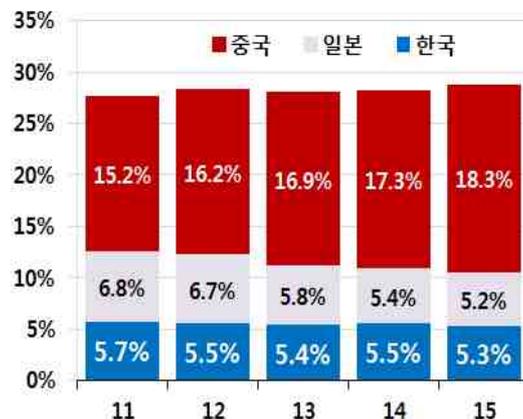
- 최근 빅데이터, 3D프린팅, 드론,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의 신기술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분야들이 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의 확실한 시장수요나 구체적인 생산방식이 확보되지 않아 산업 단계로 발전하여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관련 기술 취약, 연구인력 부족, 제도적 미비 등 우리나라만의 취약성으로 신기술·신산업 확보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도 높은 편임

< 시기별 주력산업 부가가치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 한·중·일 13대 주력품목의 세계수출시장점유율 >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2016).

⑥ 산업 내 (Intra - industry) 구조조정 확산

○ 산업 내 한계기업의 퇴출과 기업 내 저부가 사업 부문 정리를 의미하는 협의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 장기 불황 국면이 지속되면서 취약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과 기업의 영속성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 경기 사이클상 침체 국면과 경쟁력 취약으로 인한 수요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임

-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어 한계기업의 시장에서의 퇴출, 기업 내 저수익 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된 지원 제도는 『통합도산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기업활력법(이하 기활법)』 등이 있음

· 이중 통합도산법은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 관련 제도이며, 기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주도하는 제도임

· 한편, 기활법은 신용등급 A, B의 정상 기업의 과잉공급(예상) 사업 분야에 대한 기업 주도의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임

- 보다 큰 틀에서 경제의 주력산업 재편을 의미하는 광의의 구조조정, 즉 산업간 (Inter - industry)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

< 한계기업수 및 한계기업수 비중 >



자료 : 한국은행(2016).  
원자료 : KIS-VALUE.

< 정부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 >

구조조정 지원법	기활법	기촉법	통합도산법
구조조정 특징	선제적·자율적	사후적·타율적	
대상 기업 (신용등급)	정상기업 (A, B)	부실기업 (C)	한계기업 (D)
구조조정 주체	기업자율	채권금융기관	법원
구조조정 내용	M&A 절차 지원 자금·세제 지원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언론보도 종합.

⑦ 국내 불확실성 증폭으로 해외생산 (Foreign production)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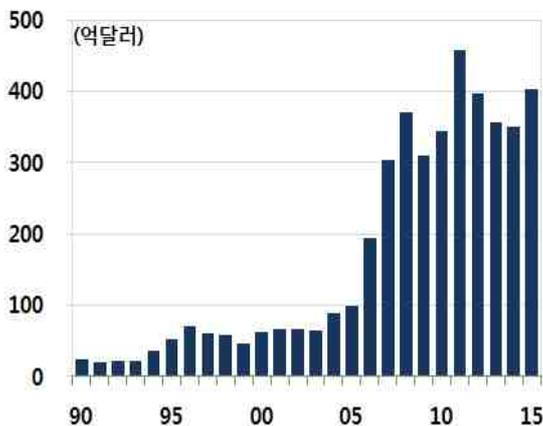
○ 정치불확실성 증폭, 반기업 정서 확산, 생산요소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의 국내 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업들이 수익성 저하에 직면하면서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수요확보를 위한 시장접근 등을 위해 해외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

-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설비투자는 침체를 지속중임
- 향후에도 경제 전반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여 우리 기업들이 생산요소 비용 절감과 시장 접근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금융위기 직후 13.9%에서 2014년 18.5% 상승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20%를 상회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자동차 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50%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비중은 약 8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2017년은 대선에 따른 정치불확실성 급증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유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

< 해외직접투자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제조업의 해외생산/총생산 비중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6a).

### ⑧ 4차 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가속

○ 신성장 동력으로써의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 IT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외 모두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이 부상

-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모두 IT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여 장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모습임
- 특히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7%에서 2010~2015년 3.2%로 1.5%p가 하락하였으며, 2026~2030년에는 2% 수준으로의 감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새로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임
- 아직은 4차 산업혁명이 생산 공정에서의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향후에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로봇,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고,
-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들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함으로써 대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이 유발되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능력은 다른 경쟁국가들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

- WE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제조업 혁신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대응 준비 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법적 보호 등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국가 전략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를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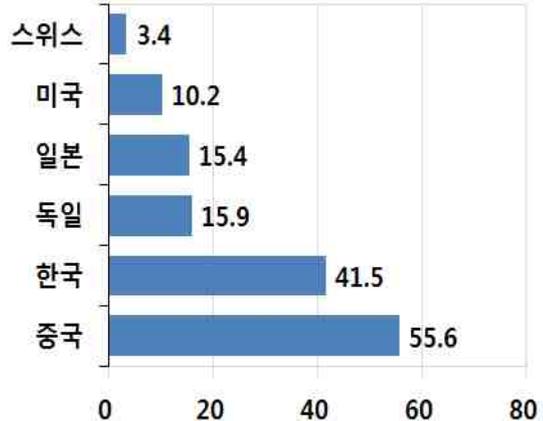
가가치가 창출되는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산업혁명의 발전 단계별 특징 >

산업혁명	특징
제 1 차 (18 C)	• 동력 • 수력 및 증기 / 기계식 생산설비
제 2 차 (19~20C)	• 자동화 • 노동 분업, 전기 / 대량생산
제 3 차 (20C 후반)	• 디지털 • 전자기기, IT / 자동화 생산
제 4 차 (2015~)	• 융합 • 사이버 물리 시스템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6b)에서 재인용.  
원자료 : WEF.

< 국별 4차 산업혁명 대응수준(p) ><sup>1)</sup>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6b)에서 재인용.  
원자료 : UBS(2016).

### 3. 시사점

첫째,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과 FTA 활용도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 세계 경제의 경기 회복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둔 사업 계획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회복 지연 가능성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이 요구됨
- 세계 경제의 핵심인 미국 시장수요 변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산업지형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한미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이외 상대적으로 구매력 증가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베트남, 이란 등에 대한 시장 수요 분석을 강화하고, '한류 확산'에 기반을 둔 '한류 소

1)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에 대한 점수이며, 낮을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임(총 138개국 대상 분석).

비재'의 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함

둘째, 성장잠재력 원천인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생산요소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 경제 발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노동과 자본의 물량투입보다 생산성이 경쟁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함

셋째,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될 수 있는 대중국 수출전략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 중국 산업의 경쟁력 급상승, 중간재의 자국 생산 확대 등의 정책으로 향후 한국산 중간재 수출의 판로가 크게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 고기술·고부가 소재·부품 중심의 중간재 수출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함
- 또한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소비재 및 서비스 점유율 제고를 위한 중국 시장수요, 글로벌 경쟁기업들의 동향, 중국정부의 통상정책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넷째, 산업성장력과 고용흡수력 등의 경제체력을 감안한 산업 내 구조조정의 완급조절이 요구된다.

- 최근 산업 내 구조조정이 자칫 산업기반의 붕괴와 고용 상황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특히 기존 사업에서 신사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

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의 실효성 점검 및 보완, 전직 프로그램 강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함

**다섯째,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경제와 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신산업 발굴 정책이 절실하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기술에 대한 R&D투자 및 연구인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단지 기술적 관점에서만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한다면 투자가 집중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연구 분야에 재원이 분배되면서 그 성과의 한계가 표출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시장과 수요의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 개발에 한정된 재원을 집중해야 할 것임

**여섯째, 경제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간 (Inter-industry) 구조조정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 산업 내 구조조정에서 해당 산업의 고기술·고부가 분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확신을 가지는 경우에는 생산 시스템 구축과 시장 진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산업 내 구조조정의 방향은 고기술·고부가 부문으로의 생산 비중 확대로 가야하는 것은 분명함
  - 그러나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수요의 대부분을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잠식하고 있는 분야로의 구조조정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함
  - 즉 최근 부상하는 분야들의 경우 기술주기가 빠르고 승자독식의 시장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고 생산체제와 인력을 구성하여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이미 레드오션 시장일 가능성이 높음

- 한편 보다 중요한 문제인 『산업 간(Inter-industry)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한국 경제 및 산업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산업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 내 (Intra - industry) 구조조정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한계를 가지며 산업전략이 아닌 산업정책에 그칠 뿐임

**일곱째,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시장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의 해외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 동기가 무역장벽에 대한 우회 및 현지 시장수요 확보를 위한 것에 있다면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하는 점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음
- 그러나 해외투자가 많아지는 것이 정치불확실성, 생산요소 비용의 증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대립적 노사 관계 등의 국내적 요인에 있다면 이는 국내에 남겨질 수 있는 부가가치와 고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 관련 규제에 대한 신속한 완화와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향후 대선에 따른 정치불확실성으로 인해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노사 관계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 확대, 정부의 기업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함

**여덟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방향이 『효율·축소』에서 『성장·확장』로 지향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미래산업전략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가 가지는 장점은 포괄성, 광범위한 파급력, 높은 실현가능성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지나친 포괄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의 범위가 사회,

문화, 교육 등으로까지 번지고 장밋빛 미래만이 제시되는 경향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가장 시급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에 서있는 기업과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산업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구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향후 당면과제로 직면하고 있는 주력산업의 무게중심을 찾는 산업 간 구조조정과 '4차 산업혁명'이 연계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한국의 산업전략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 한편 산업적 측면에서만 보면 기업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의 적용이 생산성 제고, 불량률 감소, 스마트한 공급망 구축 등 생산공정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는 『효율·축소』 지향적 방향이 주가 되고 있음
- 이에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성장·확장』 지향적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필요한 장비 제조 산업, 시스템 개발 공급업, 소비자 데이터 분석 정보서비스업, 주요 신기술 연구개발업 등으로 판단됨
- 한편,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가 다양한 분야들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는 시장 진입, 투자, 윤리,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에 주력함으로써 관련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임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參考文獻】

- IMF(2016),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6)』 .
- UBS(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 WEF(2016),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 - 2017』 .
- 국제무역연구원(2016),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주력품목의 경쟁력 국제비교”, Trade Focus 2016년 31호.
- 한국은행(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
- \_\_\_\_\_ (2016), 『금융안정보고서(2016. 6)』 .
- 현대경제연구원(2016a), “국내 산업 공동화, 어디까지 왔나?”, 경제주평, 16-26.
- \_\_\_\_\_ (2016b),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경제주평, 16-26.
- \_\_\_\_\_ (2016c), “취약 산업의 위축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평, 16-43.
- ILO(<http://www.ilo.org/>).
- OECD(<http://stats.oecd.org/>).
- WEF(<http://www.weforum.org/>).
-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HRI**